

교차로



종단간부회의 주제

합 예정이다.



제주불교협 신년법회

종원스님(관음사 주지)은 오는 5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오리엔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올해년 제주불교인들의 신심과 화합을 다짐하는 제주불교협의회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성도절 기념법문



정현스님(용주사 주지)은 오는 8일 성도절 일을 맞아 용주사 수원 포교당(주지 성관)에서 성도절 기념 특별법문을 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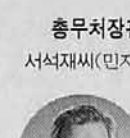
인도불교성지 참배

현고스님(송광사 주지)은 오는 6일 광주 불일회 회원들과 함께 인도불교성지 참배를 위해 12와 13일의 일정으로 출국한다.

BBS '오늘들' 진행

이기영박사(한국불교 연구원장)는 '현대 사회와 원효의 화쟁 사상'을 주제로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BBS 불교방송 '오늘들' 이끄는 불교'의 진행을 맡는다.

총무처장관에 취임



서석재씨(민자당 당무위원)는 구랍 23일 내각개편에서 총무처 장관에 임명됐다. 4선의원 출신인 서장관은 61년 부산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아고 교사로 재직중 정치에 입문해 민주협상임위원, 통일민주당 사무총장, 민자당 당무위원직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정책수석 맡아

박세일교수(서울대 법대)는 구랍 23일 있는 내각개편에서 청와대 정책수석에 발탁됐다. 박수석은 서울대 법대, 미국 코넬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우리는 돼지 띠 "일 욕심 많아요"

한글 불타조사원류 간행

도문스님(61, 대각사주지)은 용성대종사의 법제자인 동원 원규대선사의 탄생1백주년을 맞아 올해년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올해에는 불교의 5대 수행법, 전법계등을 수록한 '불타조사원류'를 한글로 간행하는 것이 계획이다.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 끝에 맞이하는 올해년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 끝에 맞이하는 올해년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주지직을 물러나 오는 4월 미국 유학길에 오를 예정이다. 불교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 불교관련 학문을 미국에서 공부하여 21세기 불교를 대비하고자 한다.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다.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다. 논문 재결집 계획 이봉춘(49,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올해 올해년을 결집의 해로 정했다. 20여년동안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발표한 여러편의 논문들을 각 분야별, 시기별로 재결집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이다.

개척사적 적극추진

범하스님(49, 조계종 총무부장)중요한 시기에 종단의 중추적인 소임을 맡게 돼 새해를 맞는 소감이 남다르다. 올해에는 전통도들의 뒷받

지방국 개국에 전심전력

김태호(61, 불교방송 사장) 불교방송의 현안불사인 지역 개국이 소망이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 올해가 돼지해인 것처럼 모든 불자가

불교세계화에 앞장

송병욱(49, 불교방송국 재단사무국장) 한국불교의 세계



◇ 도문스님



◇ 범하스님



◇ 시현스님



◇ 현능스님



◇ 김태호씨



◇ 한명숙씨



◇ 리선행씨



◇ 김홍국씨

침으로 그동안 지속돼온 종단 개혁불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심동체되어 돼지처럼 순박하고 거지같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

화를 위해 포교에 탐욕을 내고자 한다. 돼지처럼. 세계불교를 위해 불자 모두 희생정신을 갖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불교인으로 바른길을 걷고자 정진했으면 하는것이 나의 소망이다.

불교의 사회화에 역점

시현스님(49, 조계종 문화사회부장)복지사업을 구체화시켜 불교의 사회참여를 적극 실현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세계무대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정립과 불교적인 포용력으로 남북분쟁을 풀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아들 앨범 사랑받았으면

한명숙(61, 가수) 돼지는 행운을 부르는 영물이라 한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1월이 나올 아들의 1집 앨범이 팬들에게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국불교 해외 알릴터

리선행(49, 수미산여행사 회장)행운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돼지해에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이어졌으면 한다. 전세계에

미국 유학길 오를 예정

현능스님(37, 사천왕사 주지) 지난 6년간 사천왕사의

한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본다.

(KBS)

▲세계의 다큐멘터리 실크로드(1.6 23:10~24:00) 아시아 내용을 풍서로 확대하던 고대의 교역 교통로,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문화의 교류와 불교전래 과정을 살펴본다.

신년 연휴 특집 방송

▲소리로 듣는 연하장(1.2 11:05~12:00)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불교방송 청취자들에게 띄우는 신년인사.

장에게 들어본다(1.2 08:10~09:00)

6월 본격적인 지자체실사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1C 도시발전 계획을 듣는다.

▲보도특집 최명렬 서울시

장에게 들어본다는 새시대 새불교(1.20:05~11:00) 온갖 사회비리와 병폐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종교인의 역할이 다른 어느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 취임

▲발다다 좋은날 되소서(1.1 11:05~12:00)

교계 유명인사로부터 일반신도에 이르기까지 새해 희망과 꿈을 다채롭게 듣는다.

▲월주스님께 들어보는 새시대 새불교(1.20:05~11:00)

온갖 사회비리와 병폐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종교인의 역할이 다른 어느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 취임

▲보도특집 사찰환경 파괴되고 있다(1.5 19:20~20:00)

청정환경의 보루인 사찰주변이 온갖 쓰레기와 소음으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취제를 통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책을 제시한다.

▲보도특집 사찰환경 파괴되고 있다(1.5 19:20~20:00)

청정환경의 보루인 사찰주변이 온갖 쓰레기와 소음으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취제를 통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책을 제시한다.

▲01 특집, 깨어나는 천년의 신비 고구려 고분벽화(1.4 23:00~)

광복50주년인 새해를 맞아 불단이후 최초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영상물로 기획돼 방송된다.

▲01 특집, 깨어나는 천년의 신비 고구려 고분벽화(1.4 23:00~)

광복50주년인 새해를 맞아 불단이후 최초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영상물로 기획돼 방송된다.

백성희 신성일 김무생 박찬갑

늦깎이 동국가족들 "가슴 설레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연예계 스타 대거 입학

종합 동국대에 국내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개설된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 예술, 연예계의 '스타'들이 대거 입학했다. 대학원측은 지난 20일 각 학과별 합격자를 발표했다. 1백30여명의 합격자중 화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일은 연극전공 김중석(M.C), 영화영상전공 신혜수(영화배우), 관리자과정으로 신성일(영화배우) 박찬갑(텔런트) 김무생(텔런트) 박인자(속대 무용과 교수) 정재만(속대 무용과 교수) 박찬수(목아 박물관장) 박찬갑(조각가) 김용철(소설가) 백성희(연극인) 김지현씨(가수) 등. 숙명여대 박인자교수는 "넓지 않은 문화예술인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무용이외에도 전반적인 문화예술인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싶다"며 입학 소감을 밝혔다. 동대 출신으로 연극과에 입학한 김중석씨는 모교에 처음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이 대학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숭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찬수, 신성일, 박찬원, 김무생씨들은 "그동안 많은 실천경험을 해왔으나 이론적으로 혹은 관리자로서 미흡한 교육의 장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던 중 이번엔 좋은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면학에 힘쓰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중근 기자>

◇ 백성희씨

◇ 정재만씨

◇ 김중석씨

◇ 신혜수씨

◇ 김용철씨

◇ 김지현씨

◇ 신성일씨

◇ 박찬갑씨

◇ 김무생씨

◇ 김지현씨

한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본다.

▲소리로 듣는 연하장(1.2 11:05~12:00)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불교방송 청취자들에게 띄우는 신년인사.

▲광복 50년, 분단 50년(1.2 15:05~16:00) 분단 5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남북대화와 접촉, 이산가족들의 아픈 사연들을 통해 분단이 가져 온 한민도의 역사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의 한국의 앞날을 예견한다.

▲보도특집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이대로 좋은가(1.3 19:20~20:00) 훼손과 방치의 일로에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태 파악과 불자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존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 제시한다.

▲보도특집 사찰환경 파괴되고 있다(1.5 19:20~20:00) 청정환경의 보루인 사찰주변이 온갖 쓰레기와 소음으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취제를 통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책을 제시한다.

(KBS)

▲세계의 다큐멘터리 실크로드(1.6 23:10~24:00) 아시아 내용을 풍서로 확대하던 고대의 교역 교통로,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문화의 교류와 불교전래 과정을 살펴본다.

(SBS)

▲01 특집, 깨어나는 천년의 신비 고구려 고분벽화(1.4 23:00~)광복50주년인 새해를 맞아 불단이후 최초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영상물로 기획돼 방송된다.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정상복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햇빛을 받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낯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동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승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가게와 배행의 사나이. 일찍이 수키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카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뀐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문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中央日報社